

군의 사기는 국민의 성원에서 나온다.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군 전체를 비난하면 안된다. 오늘도 전투기 조종사들은 조국 영공을 지키기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출

격한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청년 시절부터 새겨진 사생관이 있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50년 만에 장릉에서 발견된, 몰랐던 인연

남 창 희 (인하대 교수, 고 남영찬(공사8기) 중령 장남)



1970년 6월 8일, 한국 공군 에이스 전투조종사가 순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다. 비행교관 자격을 가진 약관

35세 편대장(고 남영찬 중령, 공사8기)은 교육생 후배를 조종석에 태우고 예정에 없던 착륙 훈련에 나섰다. 당시 착륙 훈련 대상인 강릉 해변의 비행장은 활주로도 짧고 하강 바람이 자주 불어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저 교육 임무에 충실하고자 했던 편대장은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반백년이 지난 2022년 9월 그 편대장의 아내는 지병 끝에 그토록 그리던 남편 품으로 갔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들은 장릉 속 깊은 곳에 간직해 둔 장례식 당시 조위금 기록부를 발견했다. 젊은 보라매의 아내는 전우들의 조위금 기록을 평생 소중히 보관했던 것이다. 김구 주석 아들 김신 중장, 한국전의 영웅 김두만 장군이 후배의 안타까운 죽음에 아낌없는 부의금을 낸 흔적이 보였다. 하나씩 살펴보면 명단에 민간인이 세 명 보였다. 수원시장, 수원이 발생지인 선경방직 최종현 사장,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환갑이 다된 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조종훈 대한항공 사장, 3만원.” 당시 3만원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300만원이다. 예기치 않던 발견에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른다. “우연이 아닌 운명적 만남이었던가...” 하며 혼자말을 내뱉는다. 52년 전 각별한 애도의 마음을 표했던 조희장이 인수했던 인하대학교에서 그 아들은 이 사실도 모른 채 교수로 21년을 근무했기 때문이다.

당시 생면부지의 조종훈 회장은 왜 많은 조위금을 보냈을까? 아들은 궁금함에 집안 어른들, 부친의 동기생과 공군 관계자들에게 탐문했다. 69년 3월 조종훈 회장은 회사 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을 출범시켰다. 적자에 허덕이던 국영 항공회사를 맡아달라는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뿌리



칠 수 없었다고 한다. 낮은 항공업계에 진입한 조희장 입장에서 공군 조종사의 순직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베트남 전장에서 보급품 수송 사업에 참여하면서 포연 속에 쓰러져 간 젊은 군인들을 목격한 조희장이 남다른 안타까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역사는 답답히 말한다. 60년대 말은 대한민국 안보에 최대 위기였다.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공격, 미군 정보함 프예블로호를 북한이 나포하는 등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었다.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에 온 국민이 마음을 졸였던 비참한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전설적 공군 최정에 부대 102대대 에이스 편대장의 순직은 적지 않은 국가적 손실이 었다.

적자 항공회사 운영도 힘겨웠지만 조희장은 기꺼이 유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조금이나마 유족들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비에 보태라는 마음으로 조위금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 국가안보에 대한 각별한 의식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남다른 배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애국심이라고 부른다.

50여 년 만에 세상에 나온,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 그 특별한 위로에 미망인은 이를 악물고 당시 유치원생에 불과했던 어린 장남을 잘 키우려 애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그 인하대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며 대한민국 공군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상일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 ‘記者’

(취재기자 중심으로)

김만조 (예 중령, 학사 70기, 국방전우신문 사장)



기자(記者, reporter)는 사회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직업이다. 일반적으로 기자라고 하면 언론

매체에 속해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신문기자는 신문에 실을 기사의 취재, 수

집, 집필, 편집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기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사고, 사건, 정치, 경제소식, 생활정보 등을 신문, 잡지, TV,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일을 한다.

활동하는 매체에 따라 방송기자, 신문기자, 잡지기자 등으로 분류되고, 담당업무에 따라 취재기자, 편집기자, 사진 기자 등으로 구분되며, 취재 분야에 따라 스포츠, 연예, 의학 전문기자로 나누기도 한다.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편집형태와 기준에 따라 기사를 작성한다.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가장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과 소제목을 뽑는다. 또한, 기자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쓰는 등의 언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대학의 경제학과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국방전우신문사에서 8시간의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과 언론, 정보, 문화콘텐츠, 소셜미디어, 언변과 대화능력 등 기자 연수 교육을 받고, 본 신문사 취재기자로 신문사협회 기자증을 받고 국방부 출입기자로 선발되어 취재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正道)의 길로 국가 안보단체 매스컴으로 신문발행호수 제282호(2025.1.1.)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으로 존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훈장 없는 국가유공자(월남전참전자)로써 전투경험과 인생경험과 군 생활의 경력으로 독자들에게 팩트 전달을 지향하고, 우리 세상을 세상에 전하는 사

명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은 사라졌고 기자보다 똑똑한 독자들이 많다.

기자의 위상추락은 당연하다. 하지만, 필자는 2가지에 중점을 두고 기사전달을 하고자 한다. 필자의 좌우명이라 할까,

첫째는 리포팅(REPORTING)에 충실해야 한다. 자료수집과 팩트의 기사 이런저런 얘기들을 분석해야 하고,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는 겸손해야 한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봉사 헌신해야 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겸손하지 못하면 그 능력은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항상 배려를 바탕으로 독자를 존중하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를 대할 때 항상易地思之(역지사지)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독자들에게 매사에 역지사지 자세로 대한다면 이것이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임무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세상일을 세상에 전할 뿐이다.//

미국 최대 가전쇼(CES 2025)

황태인 (예 중위, 학사 70기, (주)토브넷 회장)



올해1월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Las Vegas)로 떠나는 사람이 예년에 비해 많았다. 1월의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사람과 돈,

기술이 모여 새로운 트렌드를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IT·가전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가 열리기 때문이다. CES의 시작은1967년 뉴욕에서TV와 냉장고 등 가전 위주로 출발한 전시회였다. CES는 해를 거듭할수록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세계 최대의 종합 전시회로 변모했다. 최근의 CES는 그 해 펼쳐 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나침반’으로 일컬어지며, 해마다 수백 개에 달하는 혁신기업이 선정된다. CES는 혁신 비즈니스 플랫폼 전시회로 탈바꿈 되었다.

CES 2025는1월 7일부터 10일까지 AI 키워드로 열렸고 공식 슬로건은 ‘다이브인(Dive in)이다.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발견하여 모든 산업이 AI로 뛰어들자는 의미다. AI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로봇틱스, 자율주행, 웨어러블 확장현실(XR)에 ‘기계 두뇌’가 탑재되었다. AI는 이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등 전통적 산업을 넘어 농업, 푸드, 환경분야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166개국, 4800여 개 기업이 행사에 참가했다.

CES 2025의 C가 Consumer(소비자)가 아니라 Car(자동차)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빌리티에 집중되었다. 세계1위 자동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가 5년 만에 CES에 나오며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회장은 수소 연료전지, AI, 자율주행차 등으로 이뤄진 미래형 스마트 도시인 ‘우븐 시티(Woven City, 직조(織造) 도시)’ 진행 상황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우븐 시티는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산 인근에 건설 중인 미래 도시다. 도

시 내 이동은 자율주행차로 하고 도시 간 이동은 도심항공교통(UAM)을 이용하며 택배는 드론으로 한다고 한다. 올 가을1단계 공사가 끝나면 도요타 직원 360명이 입주하고 거주민을 2,000명까지 늘려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홈으로 인공지능(AI) 도시화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단연 CES 2025에서 눈길을 끌었다. AI 반도체 수퍼스타로 불리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CES 기조연설을 하면서 라스베이거스 맨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 1층 미켈롬 울트라 아레나에서 1만4,000석을 꽉 채운 청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로봇·자율주행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공개했다. 일반 개발자들이 무료로 ‘코스모스’에 접속하면 AI 로봇을 만들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블랙웰(엔비디아 최고급 그래픽처리장치, GPU) 기반의 그래픽처리장치(GPU)인 지포스RTX50 시리즈를 공개했다. 지포스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등 PC에 들어가는 GPU다. 아울러 손바닥만 한 크기의 초소형 슈퍼컴퓨터 ‘디지트(DIGITS)’를 소개하며 ‘집집마다 디지트를 통해 고성능 인공지능(AI)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5월 3,000달러 내외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작년에 이어 월마트도 드론 배송 시스템을 공개했다. 월마트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소프트웨어를 ‘10분 배송’ 지역으로 분류해 매장 반경10마일(16km) 안쪽에서 주문하면 10~30분 안에 제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AI)을 장착한 구글의 드론 계열사 윌이 운영하는 ‘월마트 드론 배송’ 시스템이 그 동안 축적한 비행 데이터를 토대로 알아서 지름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해 최적의 장소에 물건을 내려놓는 배송 시스템이다. 월마트는 사람 손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라스트마일’(소비자 문 앞까지 배송하는 것)을 드론으로 해결했다. 반면에

국내 유통사들은 각종 규제와 배송·판매 품목부터 제한 받기 때문에 드론 배송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중국 기업의 공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드러졌는데 중국기업이 1339곳으로 미국의 1509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작년보다 235곳이 늘었다. 전체 참가 기업 4800여 곳 중 30%가 중국 기업인 셈이다. 한국은 역대 최대로 1031곳으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한국기업들이 혁신상을 휩쓸었는데 전체 수상기업 292곳 중에 129곳이 한국기업으로 1위를 차지하며 K스타트업의 열기를 뽐냈다. 다음으로 미국 기업이 60곳으로 2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CES 참가 업체 중 가장 넓은 3368㎡ 규모의 전시장을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에 마련해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올해는 양자컴퓨팅 부문이 신설되었다. ‘꿈의 컴퓨터’로 불리는 양자컴퓨터는 구글이 최근 자체 개발한 양자 칩 ‘윌로’를 장착한 컴퓨터가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능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를 활용하면 계산과 추론을 하는 AI의 학습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ES 2025 행사장에서 젠슨 황 CEO가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를 최소한 15~30년 후일거라고 내다봤다. 이에 양자컴퓨터 업계는 강하게 반박하면서 앨런 바라츠 디웨이브퀀텀 CEO는 “수 많은 기업이 우리 양자컴퓨터를 이미 이용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상용화 시기는 바로 지금, 오늘”

이라고 반박했다. 양자 스타트업 큐노바를 창업한 KAIST 이준구 교수는 “한국 산업계가 갖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앞으로 5~10년 내 양자에서 핵심 산업군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기존 컴퓨터로는 수십억년 소용되는 암호화폐 해킹이 양자컴퓨터로는 몇 시간 내 풀 수 있다”고 IBM 왓슨리서치센터에서 양자컴퓨터 부문을 이끄는 제이 감베타 부사장은 힘주어 말했다.

올해 서울시는 CES 2025 행사장 내 스타트업 전문 전시관인 ‘유레카 파크’에서 서울 소재 스타트업 홍보를 위한 ‘서울통합관’을 규모 1040㎡(약 315평)로 운영했다. ‘서울통합관’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매년 CES 개막에 앞서 출품 제품 중 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상을 수여한다. CES 2025에서 혁신상을 받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21곳으로 역대 최대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CES 혁신상 수상이 스타트업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여 주기식이 아니라 글로벌 VC(Venture Capital)들과의 접점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원하고 있다. 더 나가 스타트업들은 정부가 선도적인 R&D 지원을 강화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선진국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 사업화 생태계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곳으로 흐른다는 겸손의 철학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기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 노자는 군중들을 향해 물처럼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권고하면서 물의 정신을 시처럼 읊고 있다.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언선신 정선지 사선능 동선시(居善地 心善淵 與善仁 言善信 正善治 事善能 動善時)’ 이를 풀면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며, 물은 연못처럼 깊은 마음을 갖고 있으며, 물은 아낌없이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며, 물은 신뢰를 잃지 않으며, 물은 세상을 깨끗하게 해준다. 물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물은 열 때와 녹을 때를 안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요즘 정치권과 사회적 관심은 온통 탄핵, 개헌, 조기 대선이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다. 여기저기에서 우파, 좌파, 양파로 나뉘어 냄비 끓는 소리가 여간 끊이지 않는다.

자 봄이다. 새 출발의 기쁨 속에서 그윽한 꽃향기에 취해 축배의 잔을 높이 들자. 고통을 이기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누군들 쉬우랴. 그럼에도 우리들이 앞으로 마주할 세상에도 흑한의 갈등과 대립을 이겨낸 꽃들처럼 희망이 피어나길 소망한다.

존재만으로도 찬란한 시기, 더 뜨겁게 사랑하고 배우며 힘쓰는 전우들이 되었으면 한다. 세상이 어지러워도 우리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봄에 향연, 겨울이 끝난 것을 기뻐하며, 꽃향기에 취해, 춤추고, 노래하며 거리를 활보하자. 오래 전 그림을 그리던 때가 생각이 난다.

“흰 것은 온갖 채색을 다 받아들인다. 붉은색이 들어오면, 붉게 보이고, 검은 것이 들어오면 검게 보인다. 붉은 것에, 검은 것

이 들어오면 잡탕 색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항상 백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얀 백지가 바탕이 될 때 온갖 묘한 작용이 다 일어난다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화법이다. 그렇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면 모든 것이 다 수용된다.

어제의 생각에서 벗어나 오늘 이 순간 청정한 마음으로 살면 늘 활발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하얀 백지로 돌아가는 마음의 리셋이 필요하다. 그것을 선가(禪家)에서는 반조(返照), 즉 비추어 본다는 말이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다듬고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듯 본바탕의 마음으로 비추어 돌아가는 것이다.

을사년 한 해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어떤 삶을 살아야 소중하고 보람된 삶을 사는가를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 우리의 삶도 그렇다.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마련이다. 만나는 순간, 떠날 것을 염려하는 서정적 자아의 또 다른 슬픔. 그리고 염려하던 이별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슬픔은 새로운 환희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또 다른 재회를 믿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4년이 우리 곁을 떠났다. 무척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꿈을 꾸다. 다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내 인생은 다시 담담하게 물처럼 낮은 곳으로 유유히 흘러갈 것이다.

염원(念願) - “쓰러진 꽃도 함부로 밟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꽃이 필 때까지, 꽃이 질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 그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 뿌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줄기와 이파리는 또 얼마나 울고 불며, 매달리고 달래며 그랬을 것이냐. 앓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앓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4월이여 빛으로 피어나라. 활짝 피어나라, 꽃잎처럼 피어나라. 희망으로 축복으로 피어나라. 서로서로 함께 손잡고 피어나라.”//

“상선약수(上善若水)”, 꽃 한 송이에도 세상이 달라진다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공군사랑회 부회장)



완연한 봄이 온 것 같다. 산수유가 피었다. 춘설(春雪)에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조금 펴지는 것 같다. 이제 연달아 개나리, 진달래, 목련화, 벚꽃이 피어나면서 이 회색 도시의 전경도 달라지고 있다.

꽃 몇 송이에도 심신(心身)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면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봄이 왔다. 특히 봄에 피어나는 벚꽃은 화사한 꽃잎을 만개시키며 우리를 환상적인 세계로 초대한다. 그러나 화사했던 벚꽃이 피어있는 시간은 일주일을 채 못 넘기고 지고 만다. 꽃은 잎이 나기도 전에 서둘러 피고, 떨어질 때도 꽃잎이 하나씩 꽃비처럼 날리며 떨어지는데, 이마저도 비라도 내리면 금방 땅에 떨어지고 꽃은 져버린다. 어쩔, 우리네 인생도 벚꽃과 비슷하다.

청년의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벚꽃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순간이다. 그러나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내야 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속절없이 물처럼 흘러만 간다. 만개(滿開)한 꽃들은 곧 잎이 지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짧은 삶의 향기를 품어낸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돌이킬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면, 젊은 날에는 왜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청춘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때 그럴걸’이라고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노자의 도덕경 8장에 “최고의 선(善)은 물(水)과 같다”는 뜻을 나타내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있다. 물은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도 않고, 낮은 곳에 머무르며 겸손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요?” 제자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던 성 어거스틴은 “겸손이라네.” 그러자 다른 제자가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다시 묵상에 잠겨있던 성 어거스틴은 “그 역시 겸손이라네.” 또 다른 제자가 세 번째로 물었다. “세 번째 덕목은요?” 어거스틴은 이때도 단호하게 “세 번째도 덕목도 겸손이라네.”

겸손은 믿음의 첫걸음이다. 첫 걸음을 잘못 떤다면 가는 목적지의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 노자는 진정한 군자는 세상을 물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남과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는다는 부정의 철학이다. 오늘날 경쟁 사회 속에서 언뜻 보면 소극적인 삶의 방식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물은 만물을 길러주고 키워주지만 자신의 공을 남과 다투려 하지 않는다.” 물은 내가 길러주었다고 일일이 말하지 않는다. 그저 길러주기만 할 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그 공을 남과 비교하며 다투지 않는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해놓고 그 행위에 대해 자신을 알اد달라고 집착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낮은

그랜드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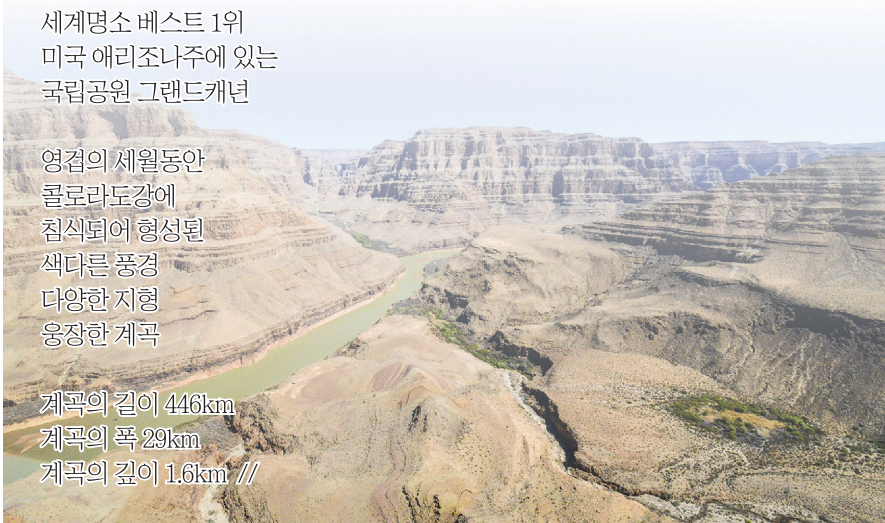
이윤우 (예 소령, 공사 6기 동기생 회장)

우리가 사는 지구
눈덮인 높은산
육어진 숲
길고 깊은 강
넓은 평야
푸른 바다도 좋지만

우리의 몸속을
해부해놓은 듯
땅속을 볼 수 있는
세계명소 베스트 1위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국립공원 그랜드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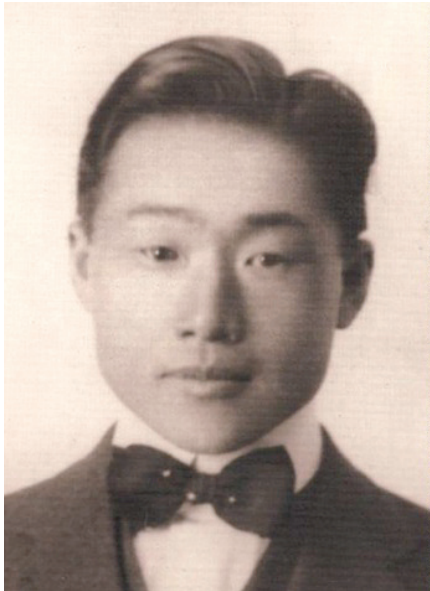
영겁의 세월동안
콜로라도강에
침식되어 형성된
색다른 풍경
다양한 지형
웅장한 계곡

계곡의 길이 446km
계곡의 폭 29km
계곡의 깊이 1.6km //



독립운동가 김종립 선생 소개

한국공군의 기원이 되는 美 ‘윌로우스 비행학교’ 설립 전폭적 재정지원



김종립 선생은 미주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며 오늘날 한국 공군의 기원이 된 캘리포니아 ‘윌로우스 비행학교’(1920.7.5) 설립에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한 인물이다.

김종립 선생은 1886년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태어나 1905년 하와이로 이민한 후 1907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다. 이민 초기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캘리포니아에서 벼농사로 한인 최초 백만장자의 명성을 얻었다.

1920년대에는 상하이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을 만나 ‘윌로우스 비행학교’ 설립과 상하이 임시정부 운영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1942년 캘리포니아 예비

군에 입대했다. 그의 두 아들은 미 해군에 입대해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과 싸우며 애국의 길을 걸었다.

광복 이후에도 그는 60세의 나이에 새크라멘토 밸리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미주 한인사회의 복리 증진에 힘썼다. 1946년 동지회 북미총회가 창립한 한미주식회사의 벼농사 사업에도 참여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1973년 1월 26일, 그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1세대 이민자들을 위한 양로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유해는 잉글우드에 안장되어 있으며, 2005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항공력을 강화해

일본을 공격하려는 비전을 가진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비록 당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였으나, 김종립 선생의 용기와 헌신은 조국과 동포사회에 희망을 주었고 후손들에게 자부심으로 남아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아들 랄프 안은 생전 인터뷰에서 “김종립 선생은 미주 한인 최초 백만장자이자, 가장 큰 규모의 쌀농장을 운영했던 분”이라며 “윌로우스 비행학교 설립과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평생 위업을 잃지 않은 존경스러운 인물”이라고 회고했다.

대한민국 국립항공박물관은 윌로우스 비행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 조형물을 제작했고, 대한민국 공군은 이를 공군

의 상징적 기원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에 맞춰 대한민국 공군전우회 LA지회(회장 심인태)는 지난 1월 9일, 로스앤젤레스 잉글우드 메모리얼파크에서 독립운동가 김종립(1886.1.19~1973.1.26) 선생의 순국 52주년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한편 공군전우회 이계훈 회장은 “이민 선조들의 헌신과 재정지원이 없었다면 비행학교 설립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늦게나마 헌화와 추모를 통해 선조들의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봄철 주의해야할 노인 천식...미세먼지 피하고 금연해야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천식은 주로 소아청소년에게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천식 환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으로 인한 천식 발생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천식 환자 137만 3,925명 중 65세 이상 고령 환자는 34만 5,729명(약 25%)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소했던 환자 수는 2023년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오인 찾아

천식은 기관지 염증으로 인해 기도가 좁아지면서 기침,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숨이 차는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여기거나 감기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심장 질환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증상이 유사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

H+양지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운동 후 쉽게 숨이 차거나, 찬 공기에 노출되면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고, 감기에 걸리면 한 달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면 천식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담배 냄새만 맡아도 숨이 차거나 쉼쉼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꾸준한 관리와 환경 개선이 중요

천식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치료는 흡입용 스테로이드 등 항염증 효과가 있는 조절제와 기관지 확장제 등의 약물치료가 기본이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감기나 독감, 스트레스 등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한다.

노인 천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흡연은 천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양지병원 전문의는 “천식 환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관지가 건

봄의 노인 천식

✓간과하기 쉬운 노인 천식

- 노화나 감기로 착각하기 쉬움
- 방치하면 기도가 좁아진 상태로 굳어 폐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
- 원인: 대기오염, 흡연, 노령으로 인한 폐기능 감소

✓예방법

금연

운동

마스크 착용

✓천식 증상: 기관지 염증 발생 → 점막 부어오름 → 근육 경련 → 점액 분비 → 기관지 막힘

천명

호흡곤란

발작적 기침

가슴 답답함

자료제공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조해지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라며 “비만한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체중 감량과 함께 가벼

운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다.//

국가보훈부 제공 혜택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예우보상 참고

[1] 장기복무(10년이상) 제대군인

가.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나. 취·창업 지원 : 보훈(지)청(보훈특별고용), 제대군인지원센터

1) 보훈특별고용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 통한 취·창업 지원

다. 교육지원 : 자녀 고교 수업료 보조, 본인 교육지원

라. 대부지원 : 주택구입, 생활안정 등의 자금지원

마. 안장지원(국립호국원: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1) 대상 : 현충원 안장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배우자 합장 가능)

2) 신청 :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에서 신청

바. 의료지원

1) 외래진료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액 50% 감면

2) 건강검진 : 보훈병원에서 검진 시 비용 50% 감면

3) 전상/공상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 상이처가 경미하여 신체검사 결과 등의 판정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상이처 진료 시 전액 국비 지원

사. 전직지원금 지급 : 월 77만원씩 최장 6개월

1) 대상 : 실업상태로 구직활동 중인 장기복무(10년~19년6월미만) 제대군인

*지급제외: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총지급액의 1/2 일시금 지급

2) 신청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또는 보훈(지)청

아. 법률구조지원

1) 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장기복무(10년~19.6년 미만) 제대군인지원 대상으로 등록·결정된 자 중 일정소득(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2) 지원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예산 소진시 자부담)

자. 공공시설 감면이용

공공시설	관람요금	감면비율	감면요금
전쟁기념관	무 료		
독립기념관	무 료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 및 능원 (서울·경기 소재)	•경복궁, 창덕궁 : 3,000원 •창경궁, 덕수궁 : 1,000원 •종묘, 조선왕릉 14개 : 1,000원	50%	•고궁 : 1,500원/500원 •조선왕릉 : 500원
국립민속박물관	무 료		

차. 주택 우선 공급

1) 관련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2) 공급대상자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자

3) 신청기간 및 장소 : 매년 1월 중 2주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4) 신청자격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동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나) 국민임대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동 규칙 제19조에 해당되는 자

다) 대상자 선정 : 무주택기간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

카. 지원사항별 구비서류

구 분	지원사항	구비서류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취업지원(직장알선) •교육지원(본인) •교육지원(자녀) •대부지원, 직업훈련 •의료지원 •공공시설 감면이용	•민원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보훈관서 비치) -사진(3×4cm) 1매 -소득신고서(자녀 교육지원 신청자)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병적증명서 1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자녀의 교육지원 신청자에 한함)
경상이 제대군인	•의료지원	•지원신청서 제출

* 본인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병적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자녀 교육지원에 한함) 확인

[2] 중기복무(5년이상~10년 미만) 제대군인

가.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창업 지원

다. 전직지원금 지급 : 월 55만원씩 최장 6개월

1) 대상 :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급제외: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총지급액의 1/2 일시금 지급

2) 신청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또는 보훈(지)청

라. 법률구조지원

1) 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중기복무(5년~10년 미만) 제대군인으로 등록·결정된 자 중 일정소득(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2) 지원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예산 소진시 자부담)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